

# 성병

청소년·성·생식보건 100문 100답 중

**Q**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1주일 전부터 성기 주위가 가렵고 아프면서 이상한 분비물이 나옵니다. 성병에 걸린건가요?

**A** 성병은 성병에 감염된 사람과의 성행위 또는 접촉으로 인해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성병은 한 번 걸려서 치료했다고 면역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성기에만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항문, 입술, 손, 가슴 등 어느 부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성병이 의심스러우면 즉시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철저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성병에 걸린 사람, 특히 청소년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당황합니다. 질병에 대한 공포와 주위 사람들의 도덕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모나 주위 친구가 알게 되는 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고 있다가 결국 질병만 키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 전문가들은 치료 대상자를 비난하거나 도덕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사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직업윤리이므로 환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성병의 정확한 진단없이 자가진단만으로 약국에서 함부로 항생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내성이 생기게 되어 역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서투른 자가치료는 병을 악화시키고 만성화시키기 쉬우므로 반드시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고 또,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Q 성병에 걸리면 아이를 못낳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성병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모가 특정 성병에 걸린 경우 태아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그러나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여성의 경우 임질균은 난관에 흉터를 남기게 되므로 난관이 폐쇄됩니다. 따라서 정자와 난자가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임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성에 있어서 임질균은 정관이나 고환에 염증을 초래하므로 정자를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Q 성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장 최선의 예방책은 성병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이성과의 성관계를 전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성교를 해야 할 경우에는 성병을 예방하는 정확하고 간편한 방법인 남성용 콘돔이나 여성용 페미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음경이나 질, 항문, 구강 등에 종창, 종양, 분비물이 발견되면 즉시 의사를 찾아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책임감 있고 건전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성병에 대한 공포는 불필요합니다.

## Q 성병의 증세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A** 성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소변을 볼 때 성기가 아프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음경이나 음부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기 주변이 가렵고 따가우며, 반점이 생기고 작고 큰 혹은 생기며 육신겨립니다. 아랫배가 몹시 아파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성병에 감염되었는가에 따라 증상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증세들은 치료를 받지 않고도 없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성병이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복했다가 다음 증세로 들어가는 경우이니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성병에 감염될 의심이 가는 성접촉을 했으면 어떤 종류의 성병에라도 감염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상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222**